

희생제사 (출애굽기 3:15-22)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단어에 가슴이 두근거린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이 박혀서 죽을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는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심지어는 우리는 죄를 누리고 악용할 정도로 완전히 해결되었는데 그것이 희생제사이다. 이 은혜와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이 단어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언약이 있어야 한다.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죽어야 된다는 말이다.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수도, 만날 수도 없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다. 니가 살아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다. 그 생명이 언약 안에 있다. 그래서 언약이 내게 있어야 내가 생명도 얻고 응답도 받는다. 이 생명과 응답이 오직 언약 안에 있고 언약이 그리스도이다. 본래는 이 언약만 있으면 생명과 응답이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었다. 사람이 무슨 노력을 하지 않아도 생명과 언약이 그냥 오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이제는 생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 전에는 이런 조건이 없었다. 그리고 이런 믿음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지금은 생명을 위하여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다. 응답에 대해서도 전에는 응답이 늘 와 있었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 없었다. 기도하거나 응답을 잡거나 할 필요가 없었다. 그냥 살아 있는 자체가 응답이었다. 무슨 영적인 작업도 필요 없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되어지게 되었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지금은 무슨 조건이 필요하고 무슨 행위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믿음은 생명에 늘 따라다니는 조건이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생명을 얻을수 없는 조건이 된 것이다. 응답을 위해서도 언약을 잡거나 기도해야 하는 조건이 불어지게 되었다. 물론 아무것도 안해도 이미 와 있는 응답도 있다. 그것을 일반은총이라고 한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햇빛과 공기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의 심장도 자동으로 된다. 그런데 처음 언약이 깨지고 이런 조건이 붙게 되었는데 이런 조건이 붙는 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도 옛날처럼 살수 있다는 말이다. 첫째 언약 이전 상태로 지금도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이다. 모든 것이 저절로 되어 지고, 무슨 일에 대해서도 갈등이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아무 상관 없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눈으로 보이는 것은 옛날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상태는 그때와 똑같은 상태가 될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누림 안에 있는 약속이다. 이 땅에서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세계이다. 조건이 필요한 이 시대에도 얻을수 있는 영적인 세계이다. 우리가 잡은 언약, 그리스도 안에는 이것이 약속되어 있다. 언약이 깨어진 상태와 상관 없이 최초 언약이 깨어지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깊은 영적인 세계가 있으면 이렇게 누구든지 될 것이다.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이런 누림의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에서 희생제사, 즉 십자가에서 피흘려 돌아가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는 주간이 되기 바란다.

1. 희생제사

이 언약의 피제사는 창세기 3장 21절로부터 시작되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말하고 있다. 이 가죽옷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희생제사를 설명한다. 짐승이 하나 죽어야 가죽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양을 하나 잡아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지를 가르쳐 줬다는 것이다. 이제는 처음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게 되었다. 없으면 인간은 죽는 것이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인간을 살리고 싶으셨다. 그래서 언약을 말해준 것이다. 언약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언약의 피제사를 십자가에서 완성했다. 처음 언약이 깨진 것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것을 완성할 때까지의 양의 피제사, 이것이 희생제사이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언약이 바로 이 언약이었다. 이 언약의 제사는 창세기 2:17절 처음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준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완성될 때까지 주신 언약이다. 그래서 일시적이고 그림자 언약이라고 한다. 한시적이고 그림자 언약이었지만 이 언약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 능력과 권세가 같이 나타났다. 이 언약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개인과 국가에 그 능력이 그대로 나타났다. 반드시 저주가 떠나갔고 재앙이 무너졌다. 이 언약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사단의 모든 역사가 힘을 쓰지 못했다. 문제가 오면 반드시 역전이 일어났다. 반드시 그랬다. 잘 안 믿어지면 구약성경을 새로 읽어보면 된다. 언약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다. 그 언약이 언약이 되어 있는 개인도 아무도 이기지 못했다. 쳐들어 온 적군이 자기들끼리 싸웠다면 정신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것도 같가지고 싸우고 서로 죽었다. 왜 갑자기 쳐들어 온 적들이 갑자기 싸우고 정신문제 걸리나?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다. 잘 아는 18만 5천명이 상상해보면 하루 저녁에 이유 없이 죽어 버렸는데, 우리가 사는 위디어 인구가 몇 명이겠는가? 18만명이 아마 안될 것이다. 어느날 일어나보니 전부 다 죽어버렸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때 히스기야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히스기야는 그냥 우상만 없앤게 아니라 산당도 모두 깨버렸다. 개인도 마찬가지로이다. 우리는 답 나는가? 이것이 우리의 언약이다. 안하면 어떻게 되나? 답답해진다. 인생의 질문 많아진다. 옆에 복음 전할 사람이 있어도 이것이 답이라고 말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슬픈일이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이것이 답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이것을 하나도 못 누리면 슬픈일이다. 누가 아브라함을 이기겠는가?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완전한 신앙인이 아니다. 여하튼 한 개만 잡고 가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자기가 거짓말했으니 자기가 죽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이 대신 바로를 쳤는가? 언약을 잡으면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불합리하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너무나 합리적이다. 바로 너는 천년을 왕을 해도 한사람도 못 건져. 니가 보기에 거짓말한 아브라함은 계속 사람을 살린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릴지 몰라. 하나님이 그러면 바로에게 말할 것이다. 니가 맞아, 내가 맞아?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언약의 권세이다. 확실히 알고 여기서 끝내야 된다. 끝낼만큼 답 내야 한다. 이것을 확실히 전할 자가 되어야 한다. 아무리 큰 나라의 왕이라도 이런 아브라함 같이 언약잡은 한 사람보다 가치 없다는 것이다.

누가 다니엘을 이기겠는가? 뜻을 정했다. 누가 바울을 이기겠는가? 하나님이 불렀다. 아무도 못 이긴다. 핏박 아무리 해도 소용 없다. 결국은 전부 뒤집어진다. 이 희생제사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약속되어 있다. 희생제사 안에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이 여기에 약속되어 있다. 경제도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의 피 안에서 찾아야 한다. 다른데서 찾으면 다른 경계이다. 이 언약 안에 하나님 만남이 약속되어 있다.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 출애굽할 때 그날 저녁 일어난 모든 약속의 역사가 이 피 안에 약속되어 있다. 열가지 재앙이 이 안에 약속되어 있는 것이다. 사단의 모든 나라가 무너진다. 이 언약안에 있는 것이다. 그 신들도 박살나야 한다. 이 언약안에 약속된 힘으로 박살나는 것이다. 백성들은 전부 노예에서 해방되고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새로운 힘을 준 게 아니다. 그냥 해방이 아니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고 했다. 이게 희생제사이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렘넛 여러분, 이 믿음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흥해를 건넜다. 새로운 힘이 왔는가? 언약과 관계 없는 힘인가? 광야를 정복했다.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물, 구름기둥, 불기둥, 이런 것들이 다른 이유로 왔는가? 성막도 이 언약안에 있는 약속이다. 이 언약 없으면 성막은 천막에 불과하다. 성막은 겹대기이고 그 안의 내용이 언약이다.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성막이 없으면 언약 있으면 하나님 만난다. 그런데 왜 성막을 지었나?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 오라는 것이다. 그 성막의 모형이 교회이다. 교회 오라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 기다리겠다. 물론 넓게 해석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다. 그러면 그리스도 언약 가진 백성에게 성막 지으라 하지 말지 왜 지으라 했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막을 지어놓고 거기 모이게 한 것이다. 이것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어찌된다 했나? 모이기를 폐한다고 한다.

오래 된 일인데, 내가 평신도일 때, 미국에는 TV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말을 들었다. 주일날 유원지 같은데 가서 티비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다. 그 때 순간적으로 나도 착각을 했다. 그것이 발전된 형태인가 하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알았다. 썩어가는 것이구나. 주일을 하나님 앞에 안 지키는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유원지에 가게 주고, 예배는 악세사라고 걸다리 붙여놓은 것이구나. 망하겠다. 그 이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책을 좀 많이 봤는데, 어느 교회에서 하면 된다 가르친다는 소리 들었다. 그때 나는 틀렸다고 생각했다. 지금도 비슷한 큰 교회가 있다. 무슨 긍정의 힘인가? 하나님의 힘이고 언약의 힘이지. 그런데 이 복음이 무서운게, 그런 말한 분이 이름을 날리기 시작할 때에 내가 다락방 시작했는데 그분이 영적

문제가 심각했다. 결국 치유가 안되서 부모가 이정도 하자고 해서 더 이상 못하고 말았다. 그런데 놀란 것은, 그분은 UCLA를 졸업하고 그런 분이다. 그런데 그 미국 목사님 설교 듣고 그건 복음 아니라고 말했다. 그때 깜짝 놀라서 이 양반 낫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복음은 하나 뿐이다. 희생제사 하나 뿐이고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들어있기에 우리는 이것을 해야 한다. 안하면 믿어도 당한다. 안되지만 기도제목 하나만 정하고 다 던져버려라. 하나님 나도 이거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전부 다 있는 것이다. 내가 전부다를 얻기 위해서 걸어다니면 숨차서 죽어버린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얻기 위해서 이사람, 저사람 하면 죽는다.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제사도 효과가 있는 것이다.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받는 것이다. 지성소에 이야기 하면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너를 축복할거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안주시면 우리는 끝난다. 진공상태고 폭발해버린다. 400년 동안 선지자가 하나도 없었다. 생겨난 것이 바리새인들이다. 진짜 말씀 자체가 왔는데 십자가에 매달아 죽어버렸다. 그 정도로 정신이 잘못된 것이다. 말이 없어서.

언약이 있으면 예배드리고 기도 드리고 말씀 받을 수 있다. 언약 없으면 예배 아무도 드려도 효과 없다. 언약 없는 예배, 공중에 뜬 것, 사단이 다 가져간다.

이스라엘은 모든 전쟁에서도 다 승리했다. 죄를 지어서 한번 진 것 있지만 그거 말고 다 이겼다. 전쟁 붙었다면 무조건 다 승리였다. 한번 생각해 보라. 이유가 무엇인가? 언약을 잡았다. 그리고 거기서 이 언약을 해야 한다. 그것 말고 이유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밤새도록 해도 못한다. 뭐 하나 안되는 것이 없었다. 하나님 말씀 안듣고 대적하는 경우 말고는 아무 문제 없었다. 이것이 언약이고 희생제사이다. 다시 한번 언약 잡기 바란다. 그 언약 안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다. 다른 데 눈 돌리면 손해본다. 그런데도 계속 돌리고 있으면 바보된다. 하나님 자녀인데 불신자의 종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출애굽의 목표가 뭐냐면 희생제사였다. 출애굽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다. 18절에 이야기 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사흘길쯤 광야로 가야 된다고 말하라고 하셨다. 이것이 창세기 3장 21절의 제사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언약이 없어서 노예가 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은 사실 없다. 그런데 성경 전체로 보면 너무나 확실하다. 언약이 사라져버리면 전쟁이 일어나 잡아가버린 것이다. 언약이 사라지고 우상숭배하면 삼년간 비가 안온다. 죽는 것이다. 열왕기상 18장 읽어보면 왕도 말을 데리고 가서 풀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자고 말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이 언약을 회복시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18절이다. 언약 백성이 언약을 잃어버리면 어찌 되는가? 근본이 뺏혀버리는 것이다. 언약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해야 한다. 그런데 그걸 안하는 것이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이것을 안했다. 나중에 6장을 보면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신음소리가 기도이다. 기도 많이 했지만 언약이 없다. 하나님이 기도를 회복하라고 안했다. 기도는 많이 했지만 언약이 없으면 기도의 내용이 없는 것이다. 썩어있는데 양고기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의 삶이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당연히 언약의 삶이 되고 회복되어야 한다. 이 언약 안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했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으면 그 안에 다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안에 다 있다. 감추어져 있기에 이것을 찾아야 한다. 찾는 방법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 보여줘서 자동으로 찾게 된다.

2. 언약으로 잡으면 출애굽 된다.

희생제사를 언약으로 잡으면 인생이 출애굽된다. 일단 저주에서 나와야 하고 운명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안하려고 한다고 해서 안되는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 인생은 일단 출애굽해야 한다. 인생에서 사단이 무너져야 한다. 모든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 뿐 아니라 그날 저녁처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와야 한다. 그래야 세계복음화이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가? 언약을 이렇게 잡으면 된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희생제사를 이렇게 잡으라는 것이다. 이렇게 잡으면 사단의 모든 나라 무너진다는 것이다. 반드시 저주

에서 해방된다 이렇게 잡으라. 하나님이 이것을 답으로 주셨다. 저주에서 해방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다. 언약을 잡으라는 것이다. 나도 언약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잘 한번 생각해 보라. 저주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언약을 잘 안잡는다. 그 안에 답이 있는데. 경제 해방, 돈을 달라는 기도는 하면서 언약을 잘 안잡는다. 경제 안에 있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야 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으면 우리의 인생이 출애굽 되는 것이다.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에. 하나님은 언약에 역사하신다. 언약이 있을 때 역사하신다. 언약이 없는데 왜 그 사람에게 역사하겠는가? 그래도 역사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주는 그 은혜는 누구나 다 받는다. 짐승도 받는다. 우리는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언약 잡으면 자동적으로 출애굽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기를 이 출애굽의 목표는 희생제사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 회복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출애굽은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다. 바로는 질 수밖에 없다. 사단의 나라는 무너질 수 밖에 없다. 백성들은 해방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유는 한 개 있다. 언약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언약을 회복하러 가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출애굽은 아무도 막지 못한다. 이것을 막는 사람은 재앙이 있을 뿐이고 죽을 것이다. 출애굽기는 이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언약 잡은 자의 인생 출애굽은 절대적이다. 반드시 되고 아무도 막지 못하고 사단 반드시 무너진다. 그런데 사단은 또 따라온다. 그래도 상관 없다. 우리는 흥해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빠져 죽어야 한다. 그 이후에도 사단은 또 따라온다. 그래도 상관 없다. 우리도 늘 언약 잡으면 된다. 사단은 늘 따라 온다. 아무리 따라와도 우리는 늘 언약 잡으면 된다. 그러면 사단의 문제는 우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답, 언약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로 넘어가버리는 것이다. 음부의 권세는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조건은 하나 뿐이다. 그래서 이 언약이 답이다.

십자가의 보혈이 답이라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 하지만 우리도 이해 못하면 그건 안된다.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한다. 그래서 언약으로 다시 한번 잡고 모든 문제의 답으로 잡는 것이다. 잘 안된다. 하고 싶어도 안되는 사람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도 주신 것이다. 써보라 한 것이다. 해봐라. 그러면 오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답으로 주신 것은 이것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오직해야 한다. 믿음만 오직이 아니다. 믿고 구원 받는데만 오직이 아니다. 응답과 전도에도 그리스도가 오직이다. 우리 인생에 모든 곳에 그리스도가 오직인 것이다.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가 오직, 다음 세상에서도 그리스도가 오직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잡으면 절대적인 응답이 올 수 밖에 없다.

나도 그렇게 큰 증인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면 된다는 여기에 대한 증인은 된다고 본다. 세월이 가면 정말 유일성 응답, 작품이라는 것이 확인될것이라고 본다. 야, 이걸 정말 재창조, 재창조는 역전이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런 언약을 주셔서 감사하다. 우리가 언약기도를 쓰는데에서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다. 언약이 잡히는 사람은 안 써도 된다. 아직 안되는 사람은 써보면 좋다. 아직 안되었으니까,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분명히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아야 하니까. 되어지면 안해도 된다. 24시가 되면 뭐하러 하나? 깊이 누리는데.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이 언약을 주셨기에 바로는 질 수 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절대지지 않는다. 아무도 못 이긴다.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고 정복한다. 사실은 정복할 필요도 없다.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끝인데.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정복같은 것 안한다. 우리끼리 정복하면 할렐루야 만세지 하나님에게는 그런거 없다. 언약을 회복하기 바란다. 이번 주간에 특별히 희생제사, 과연 이것이 나에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기 바란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자동적으로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출애굽이 될 것이다. 매일 지속적으로 언약을 고백하라. 사단의 모든 역사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음부의 권세는 절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노예된 모든 것로부터 나는 반드시 해방되게 되어 있다. 누구든지 영적문제 다 있는데 반드시 그것을 짓밟고 승리하게 된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도 이야기 했고, 창세기 15:14절에도 말하듯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고 했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설명했다. 그러면 반드시 된다는 말이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진짜 이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들어오는 축복이 이 주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한다.